

주부들 '풍수 열풍'

“남성 전유물 옛말”... 대학·주민자치센터 강좌 북적

풍수지리가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뒷자리나 집터를 정하기 위해 풍수지리에 해박한 사람을 찾아가 명당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30~50대 주부들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광주·전남 지역의 각 대학은 평생교육원 등에서 풍수지리 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는가 하면 문화센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도 풍수 관련 강의가 열리고 있다.

이제까지 풍수지리 강의 등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개 정년 퇴직한 공무원이나 역학 또는 한학 등을 공부한 60~7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2월 말 현대백화점 광주점에서 열린 '풍수 인테리어 특강'에는 1회 특강치고는 많은 70여명의 주부 수강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워 풍수지리에 대한 큰 관심을 내비쳤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 측은 “풍수인테리어 특강을 하고 난 뒤에도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아 여름 학기에도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에는 풍수지리 강좌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초·중·고급으로 나뉜 강좌 가운데 초·중급은 30여명이 넘는 수강생이 있고, 고급은 무려 80여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광주시 북구 매곡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풍수지리 강좌가 열려 10여명의 수강생들이 매주 1회 참석하고 있다. 또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광주대학교·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도 일제히 풍수지리 강좌가 열리고 있다. 각각 40~70여명의 수강생들이 풍수지리 강의를 듣고 있다. 광주대의 경우 정통 풍수지리, 풍수지리 고급 과정, 풍수지리 연구 과정 등 등급에 따라 강좌가 6개나 된다.

대부분 강좌는 강의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두번 가량 현장으로 나가 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답사가 이해력을 높인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금호교육문화회관 강사인 정일근(68)씨는 “동물이 아무 곳이나 터를 잡지 않는 것 처럼 인간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것”이라며 “수강생들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고 젊은 여성들도 조금씩 늘고 추세”라고 말했다.

1년차 수강생 박미순(여·48·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는 “풍수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지만 공부를 하다보니 마치 진리를 깨닫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아버지의 산소에 잔디가 자꾸 죽어버리는 것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여기서 배운 것을 이용해 이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내공이 쌓이면 자연스레 집안의 가구 배치 등에도 풍수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풍수인테리어 등 풍수지리의 변용에 해당하는 생활 풍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윤갑원(70) 회장은 “풍수지리란 것은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집안의 가구나 소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인간의 운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풍수지리를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 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 강좌에 참석한 수강생들이 충북 부여군 은산면 황우석 박사의 조부모 묘를 찾아 풍수지리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사)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제공



■ '풍수인테리어' 어떻게 할까

동쪽 현관이면 안방·부엌은 동남·남·북쪽 향해야

풍수지리는 뒷자리가 명당인지를 판단하는 '음택풍수(陰宅風水)'와 사는 집의 방위·구조 등이 적합한지를 살피는 '양(陽)택풍수'로 나뉜다. 풍수인테리어는 양택풍수와 연관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안에 있는 소파나 가구의 위치나 색상 등은 풍수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혹 있다손 치더라도 그 효과는 5~10%로 미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집의 구조나 방위를 따지는 것이 양택풍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흔히 풍수인테리어의 기본으로 소개되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밝은 조명 ▲천연 소재의 가구나 소품 ▲가구나 소품 등의 통일성 등은 풍수인테리어를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편안히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생활풍수에서 중요한 구조물은 문·안방·부엌의 방위다. 문은 아파트의 경우 현관문을 뜻하고, 안방은 문이 기준이 된다. 이들 세가지 요소는 팔괘(八卦·역(易))을 구성하는 64괘의 기본이 되는 8개의 도형)의 방위 가운데 길한 조합에 속해 있어야 좋은 구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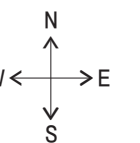
길(吉)한 조합은 두가지로, ▲동·동남·남·북쪽 ▲남서·서·서북·동북 등이다. 예를 들어 현관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면 안방과 부엌이

동남·남·북쪽에 있어야 길하다는 얘기다. 방위의 기준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집의 중심을 삼을 것인지, 건물의 중심이라 할 것인지 등 논란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간이므로 거실 또는 집의 중심에서 방위가 기준이라는 것이다.

(사)정통풍수지리연구회 김경훈 원장은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공부방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방 문과 책상, 침대의 방위가 길한 조합에 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책상은 앉은 사람이 보는 방향, 침대는 머리 방향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風水

<p>생활정보</p> <p>대지전성명 T. 010-8271-8888 010-8271-8888</p>	<p>현대자동차</p> <p>비즈니스 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현대자동차</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중고차 최고가 살립니다</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광주시내</p> <p>최고위치</p> <p>2003년 8월 오픈</p> <p>대형빌딩 40개</p> <p>층 위층주점</p> <p>월세 6,000만원</p> <p>동작급17억</p> <p>가격 상당후 검토</p> <p>현금 특급 매매</p>	<p>현대자동차</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현대자동차</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중고차 최고가 살립니다</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현대자동차</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현대자동차</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중고자동차 전자총 매일 판매</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현대자동차</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현대자동차</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현대자동차</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현대자동차</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	<p>현대자동차</p> <p>현대자동차 010-8271-8888</p>